

세계화를 지향하는 식품 정보의 장

제7회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부산무역전시관에서 제7회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6개국 88개 업체가 참가해 식품관, 식품기계관, 포장기계관, 외식업프랜차이즈관 등의 4개 테마로 구성해 관람의 편의를 더했다.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의 참가 업체 및 박람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이 주최하고 농림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공업협회가 후원한 제7회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POFAS 2000)가 지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부산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호주, 미국, 이태리 등 6개국 88개 업체가 참여해 식품 산업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되었다. 특히 베이커리 분야 지역 연고 업체의 경우 박람회를 통해 업계 관계자들에게 홍보 및 고객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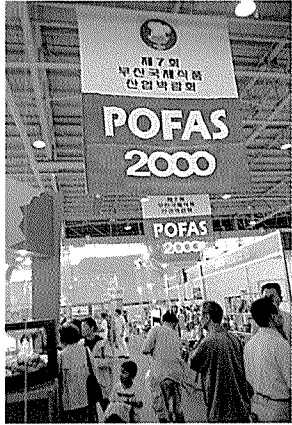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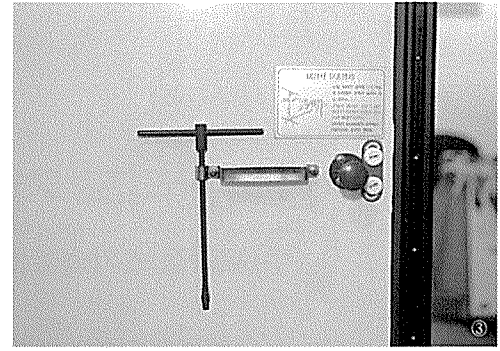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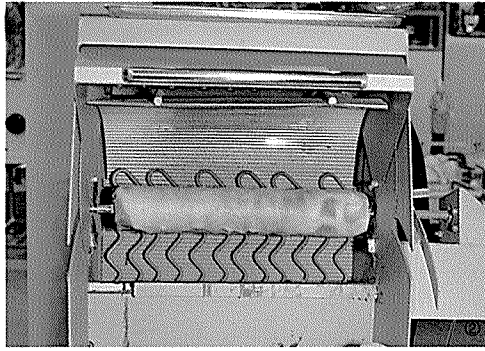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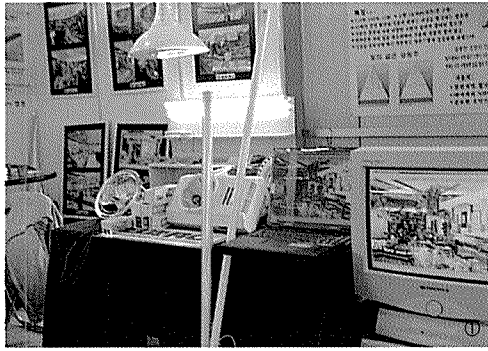
독특한 신제품 전시, 제과제빵 기술 상담 실시해

'아름다운 용기에 새로운 식품문화 창조'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제과제빵 관련 업체 이외에도 식품 원·부재료, 포장기계, 주방기기, 냉동기기, 주류, 외식체인, 육가공식품 등 식품산업 관련 다양한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업체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신제품과 첨단 수입제품도 선보였다. 부산의 제과기계업체인 신신공업사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바움쿰엔 제조기를 전시해 눈길을 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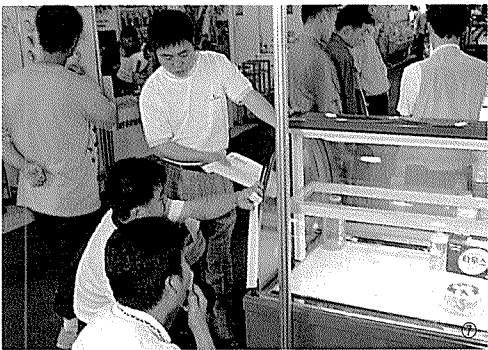
었다. 주식회사 성원은 독일에서 수입한 식품전용 조명인 BARO를 소개하는 등 참신한 상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밖에도 고려통상은 여름철을 겨냥해 아이스크림기와 슬러쉬기를 중점 홍보하였으며 몇몇 업체의 경우 제품 전시 이외에 제품 실연 코너를 운영하며 전문 담당자를 배치해 제과제빵 기술 상담을 벌였다.

박람회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이번 행사에 실질적인 식품 관련 업체가 많이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렇지만 이 박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특성상 서울에서 직접 참여한 업체의 수가 적은 것이 아쉬운 점이다. 또한 주최측의 홍보 부족으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큰 행사지만 부산 시민조차도 인식이 낮은 편이다."라고 말해 앞으로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가 실제적인 국제 행사로 발돋움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지적됐다. 이번 전시회는 총 2만 1,5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차기 행사는 새로 건설되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0년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글·사진/ 정한상 jeong@mbakery.co.kr〉



- ① 주식회사 성원이 독일에서 수입한 BARO조명은 식품전용으로 기존의 형광등과 달리 제품을 자연스럽게 싱싱하게 보이도록 한다.
- ② 신신공업사에서 독자 개발한 바움쿰헨 제조기는 반자동이지만 일제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 ③ 업소용 냉동기 전문 회사인 부성의 대형 냉동고는 기기안에 갈렸을 경우 혼자서도 탈출할 수 있는 비상버튼과 연장이 비치된 이중 안전장치로 됐다.
- ④ 박람회에 참여한 한 업체는 시식회 행사를 마련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 ⑤ 제과제빵 분야의 실연코너에서는 캐릭터 케이크를 직접 제조해 눈길을 끌었다.
- ⑥ 청량양행은 위생적인 식품제조를 위한 분무형 자동 손소독기를 전시해 눈에 띄었다.



- ⑦ 관람객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관심있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 ⑧ 부산 지역의 제과기계업체인 신신공업사는 넓은 부수에 신제품 전시 및 실연코너를 운영해 관람객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 ⑨ 베이커리 소도구 및 장식용품 전문 취급업체인 유니온트레이딩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사 홍보 이외에 제품 판매가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 ⑩ 학원으로는 유일하게 부산 국제제과제빵기술학원이 참여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 ⑪ 부산국제식품산업박람회에는 월간 호텔 & 레스토랑, 식품저널, 아이비 리그 등의 식품관련 출판 업체도 참여했다.

